

# 알고 있니? '마음' 이 담긴 '말' 에서는 향기가 난단다

조주희 | 대광고등학교 교사

여학생 앞에선 말조심이 첫째다. “이쁘다”는 말도 조심해서 써야 한다. 한번은 분위기 전환 삼아 “이 반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누구지?” 질문했는데, 순간 반 전체가 조용해졌다. 긴장감이 돌고, 시선을 피한 채 모두 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말에 예민하다. 때문에 짝꿍을 칭찬한 말 한마디에, 옆자리 아이가 한동안 빠져 있는 등, 예기치 못한 반응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남학생들은 말에 둔한 듯 보인다. 웬만한 비난에도 거뜰하게 웃어넘긴다. 여학생들이라면 크게 토라질 말들을 서슴없이 서로 해댄다. “네가 가장 똥똥해.”, “넌 멍청해.”, “젠 계집애예요.” 그때마다 당사자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긴다. 그렇게 보면, 말로 상처받는 남학생은 없는 듯하다. 그런데 한 명이 토로했다. 아이들의 장난에도 가장 여유롭게 웃어넘기던 아이였다. “저를 초딩(초등학생을 이르는 비속어)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악마적이에요.” 결국 남학생도 여학생만큼 말에 예민하다.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네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남자아이들은 상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약한 모습' 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남자아이들은 배려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 내내 놀림받던 한 아이가 소리쳤다. “날 그렇게 부르지 마!” 아이들은 더욱 장난을 쳤다. “빼쳤지? 쪼잔하게!” 가끔 보면 잔인하다 싶다. 그런데 오히려 남학생들에겐 여선생님의 부드러운 말이 낯선가 보다. 보다 못한 남학생들이 여선생님을 찾아온다. “선생님, 너무 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때려야 아이들이 무서워할 겁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면 아이들은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다. 여학생이었다면 “선생님, 너무 좋아요.” 할 터인데, 정말 다르긴 다르다.

지구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우리는 딸이거나 아들로 살아가다 엄마,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테보라 태년 지음 | 정명진 옮김 | 한언 | 316쪽 | 값 9,800원  
《위대한 여행》 에자르트 사퍼 지음 | 쥘레스티노 피어터 그림 | 김인순 옮김 | 솔 | 135쪽 | 값 7,800원



아빠가 된다. 혹은 여자 친구, 남자 친구 등 수많은 남-여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간다.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학교에서 뭐했니?” 질문하는 엄마에게 “그냥요” 하며 귀찮아하는 아들. 집에만 들어오면 침묵하는 아빠와 엄마하고만 이야기하는 딸. 이런 현상에 대해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의 저자인 언어학자 데보라 테넨은 남자는 대화 속에서 ‘권력’을 잡으려 하고, 여자는 ‘관계’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같이 여행을 떠났다. 두 시간 가량을 달렸을 즈음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다. “어디 좀 쉬면서 음료수라도 마시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아니”라고 대답하고는 계속 차를 몰았다. 그렇게 물었던 것은 실은 그녀 자신이 목이 말랐기 때문이었다. 부인은 화가 났다. 당황한 그는 “그렇다면 왜 차를 세우자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어려운 남편이었나?”하고 물었다. 그러자 부인이 볼멘 소리로 말했다. “그걸 말로 해야 알아요? 당신은 항상 자기밖에 모르지!”(15쪽)

저자는 부부의 대화를 가장 많은 예시로 들었지만 충분히 가족, 친구 사이의 대화로 적용시킬 수 있다. 이 책은 대학교 언어학 교재로 자주 사용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다. 예화가 많아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녀 언어가 다르니 이해하라”에 그친다는 사실. 그러나 사춘기 시절 말에 의한 상처로 괴로웠다면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의 대부분은 나를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한 말일 수 있으므로.

### 진심을 담은 말 한 마디 《위대한 여행》

요한이가 날 감동시켰다. 별 내용이 아닐 수 있다. 새벽녘 교회를 다녀온 자신의 어머니의 언 손을 붙잡고 이 한마디를 한다고 한다. “엄마, 오래 살아!” 이제 고3이 되는 덩치 큰 아이가 영겨 붙어서 귀찮아하는 어머니가 ‘알았다’고 할 때까지 “엄마, 오래 살아야 돼?” 묻고 또 묻는단다. 나는 요한이 어머니가 행복하시겠다고 말했다. “그렇담, 어머니께 많이 해드려야겠네요.” 요한이는 새로운 걸 깨달았던 표정이다.

말은 사라진다. 근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가끔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놀자고 조르는 아이들이 사탕발림을 할 때가 있다. 하나도 안 비숫한데, “선생님, 송혜교예요!” 할 때면, 빈말임을 알면서도 기분 좋은 건 사실이다. 하물며 이럴진대, 마음이 들어간 진담은 사람을 움직인다. 감동시킨다.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말일 수록 삶의 힘이 된다.

소설 《위대한 여행》 마음이 들어간 말에 대한 내용이다. 이 짧은 소설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이유도 바로 이 한마디의 말에 대한 소설이기 때문이다.

왕으로서 온갖 부귀를 누리던 러시아의 작은 왕이 있었다. 그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다는 이야기에 온갖 보물을 갖고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힘겨웠다. 게다가 보물도 점점 없어진다. 작은 왕이 거지 여인을 만나고 가난한 백성을 만나면서 자신의 보물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결국, 작은 왕은 모든 것을 잃는다. 게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아이를 대신해, 노예선에서 중노동을 자청한다. 30년 후 배에서 풀려난 그가 가지고 있는 건, 허탈한 마음뿐이다. 아무 것도 남은 것은 없다. 그는 절망한다. 그때 자신이 도와주었던 거지 여인을 만난다. 그 여인은 말한다. “그날 절 도와주신 그분에게 저는 저의 마음을 드렸지요.”

그때 작은 왕은 보게 된다.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위대한 왕이 십자

가에 못 박힌 채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러시아의 작은 왕은 꺼져가는 숨결을 고르며 말한다. “왕이시여, 저의 마음을… 그리고 그 거지 여인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에 가장 ‘비참한’ 여행은 《위대한 여행》이 된다.

우리는 말로 상처받지만 말로 치유된다. 아인슈타인도 그랬다. 초등학교 문제 중의 문제였던 아인슈타인의 성적표엔 ‘이 학생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이란 악평이 가득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의연했다. “너는 특별해. 남과 같아선 성공할 수 없단다.” 어떠한 독설도 진심어린 말을 이길 순 없다. 남-여가 다르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차이도 넘어선다. 친구도 세울 수 있고, 아인슈타인도 일으키고, 스스로도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지만 기쁜 일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보자. 유치하지만 기분 좋다. 말의 위력이 그렇게 크다. **한**

● 이 글을 쓴 조주희 선생님은 현재 대광고등학교 국어교사이며 문학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 CBS 다큐멘터리 작가, 리포터, 〈여성동아〉 자유기고가로 활동한 바 있다.